

삼성전자, LCD사업부 분사 의결

3월16일 주주총회에서 ... 삼성디스플레이 설립 삼성SMD와 합병

삼성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사업부를 분사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3월1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제43기 주주총회를 열어 LCD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LCD사업부를 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LCD사업부는 4월1일 자본금 7500억원의 가칭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 출범한 뒤 상반기 중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합병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회사의 대표로는 박동건 삼성전자 LCD사업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주주총회에서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165조원, 영업이익 16조원인 2011년 영업실적이 보고됐다.

권오현 DS총괄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고, 최지성 부회장과 윤주화 사장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윤동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등 3명은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최지성 부회장은 “2011년 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주주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안정적 손익을 창출하는 등 선두자리를 굳건히 했다”며 “2012년에는 전자산업 재편이 더욱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쟁 역시 심화되지만 주력사업의 경쟁력 격차 확대, 차별적 신규가치 창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성장세와 견조한 영업이익 창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고유의 경쟁력 위에 차별적 신규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래 경쟁력을 집중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비하는 상시 리스크 경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6>